

고난주간 기도문 (2025년)

고난주간 기도문 (2025년)

고난주간 기도문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경험해보세요. 매년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문 1 - 종려주일 기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9)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듯이, 우리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참된 왕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주소서.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번덕스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기도문 2 - 성전 정화의 기도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17)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정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시며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여기는 것들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소서. 명예, 돈, 권력, 쾌락 등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하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과감히 내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참된 기도의 집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기도문 3 -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36)

겿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주님을 본받아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겿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고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소서.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도 홀로 깨어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특히 이 고난주간 동안 더욱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기도문 4 - 십자가 고난의 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오직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음을 알게 해주소서.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기도문 5 - 부활 소망의 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죽음도 무덤도 주님을 가둘 수 없었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있지만, 그 후에 반드시 부활의 새 아침이 온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또한 이 소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소서.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가올 부활절에 더욱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번 고난주간 기도문들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과 묵상 자료는 [고난주간 기도문 모음] (https://www.kumnan.org/board_mPeU8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